

尹 “AI·미래 모빌리티·문화… 광주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윤 대통령 광주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를 찾아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AI) 실증도시 조성,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윤 대통령이 광주 AI 실증벨리 확산 사업(AI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AI 중심도시 광주’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2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략 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하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첨단기술 광주를 위해서는 AI 2단계 사업 추진, AI 영재고 개교를 통한 인재 조기 양성, 미래차 국가산단 신축 조성 지원, 광주를 미래차 핵심 부품 공급망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문화 도시’ 광주를 위해 남도달밤야시장 등 광주 고유 문화자원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 명소·콘텐츠 등이 담긴 ‘로컬100’을 연계한 문화 예술·관광 상품 개발·홍보,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전시관 신축, 상무소각장 부지에 광주 대표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활력 도시를 위해서는 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Bus Rapid Transit) 등 광권광역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 확충, 물순환 촉진 구역 지정 등 영상강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한 여러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가고 있다. AI 기술을 선점하는

AI 영재고 예산 추경서 반영

인공지능 2단계 예타 면제 긍정 답변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복합쇼핑몰 교통 인프라 전폭 지원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협의가 안 돼서 내년 국가 예산에 (AI 영재고) 반영이 안 된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도 얘기할 테니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빨리 협의를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도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강 시장은 광천터미널 인근으로 자리 잡는 복합쇼핑몰과 도심에 있는 BRT 건설 외에도 지하철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강 시장은 “정부와 광주시가 6대4 비율로 약 7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지하철을 개통하려 한다”며 “(1.0을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편익(B/C)도 0.8이 나온다. 충분히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절차대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BRT만 얘기를 듣고 지하철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다”면서 “그곳이 고속도로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길인데 쇼핑몰이 들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강 시장의 ‘현장 요청’에도 흔쾌히 “적극 검토”로 답하면서 광주시 주요 사업들의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시장이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를 요청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시장은 “올해 연말이면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속도의 경쟁을 이겨내려면 곧바로 2단계 사업이 이어져야 한다”며 “2단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 예타 부분은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광주비엔날레 내일 개막… 12월 1일까지 ‘86일 대장정’

‘판소리-모두의 울림’ 주제

세계 30개국 72명 작가 참여

세계적인 미술축제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대장정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16면>

6일 내외신기자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7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 (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를 주제로 전 세계 30개국 72명 작가가 참여해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비엔날레는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양림동 일대가 현대미술 공간으로 활성화된다.

전환의 시대 지구상 공간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보존할 수 있을지 담론의 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객들은 전시관 이외 양림동 곳곳을 다니며 현대미술의 다채로움을 즐길 수 있다. 양림문화센터를 비롯해 포도나무 아트스페이스, 한부철 갤러리, 한희원 미술관, 양림쌀품,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등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양림동 일대의 전시는 일상생활 속 장소에 작업을 설치해 예술과 삶의 공존, 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옛 파출소와 빈집 등을 활용한 소리 프로젝트와 관객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협업 작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대 최대 규모의 파빌리온 전시가 운영된다는 점이다. 또한 사상 첫 ‘광주 정신’과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광주관’도 개관해 의미를 더한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7개국과 중국, 일본, 카타르가 참여한다. 유럽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8개 국가가 현대미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참여했던 스위스는 올해는 파빌리온 전시 대신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페루가, 북아메리카에서는 캐나다와 함께 한다. 미국은 다양한 아메리카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아메리카관’을 운영한다.

개막식은 6일 오후 6시 중외공원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개막선언에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환영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흥보대사인 K-pop 그룹 ‘NCT WISH’에 대한 위촉식, 니콜라 부리오 감독의 전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이 이어진다.

한편 8일에는 ‘새로운 울림 : 인류세 시대의 예술과 기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개최된다. 연사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마리나 로젠펠드, 아킴 쿠즈코 스티븐, 성 티우 등이 참여해 본전시와 연계한 소리, 기술, 문화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심정지 조선대생, 바로 옆 응급실 왜 못 갔나 ▶6면

복스-예술도둑 ‘디지털 사회를 생각한다’ ▶14·15면

여행 성지 전남 - 고택에서 사극같은 하룻밤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전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2024.9.7-12.1

15th Gwangju Biennale Pavilion

7 SEP - 1 DEC, 2024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한-아세안센터
오스트리아
영국문화원
캐나다
CDA 홀론
중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광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국제교류재단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덜란드
뉴질랜드
온큐레이팅
P/////AKT
페루
필리핀
폴란드
카타르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태국
베트남

(재)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Foundation

Africa
American
Argentina
ASEAN-Korea Centre
Austria
British Council
Canada
CDA Holon
China
Denmark
Finland
Germany
Gwangju
Indonesia
Italy
Japan
Korea Foundation
Malaysia
Myanmar
The Netherlands
New Zealand
OnCuration
P/////AKT
Peru
Philippines
Poland
Qatar
Singapore
Spain
Sweden
Thailand
Vietnam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